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랑의 대화

박홍묵/PSA 자녀성공 어머니스쿨 부원장

어느 토요일날 오후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중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자 중호 엄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을까’ 하고 있는데 문을 세차게 열어젖히면서 “우리 선생님은 정말 싫어” 하고는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달려가자마자 가방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일찍 들어 온 아빠가 이 광경을 보고는 “야. 너 가방을 왜 던지고 그래.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야단맞았구나,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돼”하고 아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훈계하는 말을 하자 중호는 아무 말도 하지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중호의 마음 속은 아직도 선생님에 대한 화나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녀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존중에 바탕을 둔 대화가 자녀와의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대화 방법을 교육받은 중호 엄마가 아빠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당신 잠깐만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테니까”

엄마 : “중호야, 선생님 때문에 화가 많이 났구나.”

중호 : “그럼,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엄마는 잘 모를꺼야.”

엄마 : “중호가 평소 화를 잘 안내는데 오늘 선생님이 너무 중호를 속상하게 했나봐.”

중호 : “오늘 학급회의 때 조용히 한 아이들은 일찍 보

내주었는데, 나도 조용히 했는데도 늦게 보내줘서 이렇게 늦었던 말이야.”

엄마 : “중호도 조용히 했는데 일찍 안보내줘서 기분이 나쁘구나.”

중호 : “그럼, 저번에는 일기 안써왔다고 점심밥도 못먹게 했던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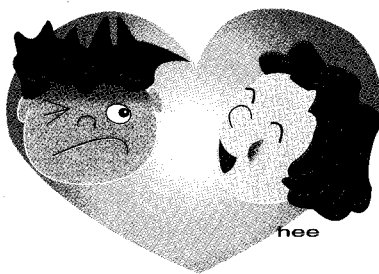
엄마 : “저런! 학교에서 급식하는 점심밥을 못먹게해서 배가 몹시 고팠겠구나.”

중호 : “그때 엄마가 없어서 라면끓여 먹었어.”

엄마 : “그랬구나. 앞으로 또 선생님이 밥 못먹게하면 어떻게 하지?”

중호 : “요새는 일기 매일 써가지고 가.”

엄마 : “그래 잘 했다. 우리 중호 참 기특하구나.”



선생님은 옳고, 잘못된 자녀에게 있다는 사고는 자녀의 끓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중호의 끓는 마음이, 엄마가 진정하고 나서 귀담아 들어주고 반응하는 사랑의 대화에 가라앉았습니다.

주의를 주고 훈계만 하는데 익숙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자녀의 생각과 기분을 이해하여 듣고 반응하면 자녀는 저절로 신이 나게 됩니다.

PSA 자녀성공 어머니스쿨 02)3486-0643~4